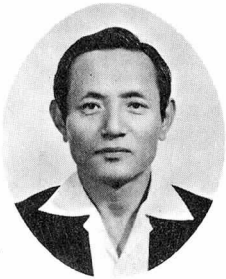


취 임 사



친애하는 연구소 감사님과 직원 여러분!

나는 오늘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연구소는 연구소의 관리와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이래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초대 소장으로 본연구소 운영에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순달장관님과 또한 직원 여러분의 뜨겁고 정성어린 연구업무수행으로 짧은 시일내에 오늘의 훌륭한 연구소로 발전하여 그 기틀을 굳게 다지게 되었음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세대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5개년 실천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본연구소의 사명은 막중하다 하겠습니까.

국가발전은 곧 과학기술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할 때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야말로 바로 경제발전과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첨단과학기술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전기와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국가가 커다란 기대속에 적극지원을 하여 주고 있는 이때 직원여러분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여 과학기술인의 긍지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연구소는

첫째,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구개발의 우선 목표는 바로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연구소의 기능이 단순한 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의 응용에 따라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 선진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관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국민경제를 향상시킴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기술을 축적,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소로서 그 뿌리를 확고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설립하신 본연구소는 정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그리고 한전등 공공기관에서 출연한 기관인만큼 출연기관의 근본목적에 상응하는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무한한 능력이 아닌 제한된 능력만이 있다고 볼 때 연구소의 능력에 맞게 모든 사업계획은 철저한 관리와 평가, 그리고 경제성을 감안한 결과활용등 신중히 검토하고 엄격히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한것만 연구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연구개발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소내 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인화단결로 더욱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기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전심전력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율적으로 소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학기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가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의 고도화된 과학사회는 과거와 같이 1인의 능력만으로 연구개발이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비로서 미지를 극복,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의주도한 관리와 평가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성은 연구소의 지향하는 목적에 따르는 조직적인 관리 범위내에서 책임이 뒤따를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본연구소의 자율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국민과 더불어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볼때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비록 그것이 무거운 책무라 할지라도 80년대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선도자적 사명감으로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고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2. 6. 22.

所長 白 英 鶴